제2부 한국유학

제6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유한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검토 범위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으로 총 90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관한 논문과 이황(李滉, 退溪1501-1570)에 관한 논문이 동일하게 15편(이황과 이이를 함께 다룬 논문 1편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을 합친 비중은 전체 논문 가운데에 약 3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황과 이이 다음으로 연구가 많았던 인물은 간재 전우로 7편이었다. 전우는 작년의 5편에 이어서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여헌 장현광(5편)과 송사 기우만(4편)에 관한 연구가 뒤를 이었는데, 이 두 인물에 관한 연구는 작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 율곡 이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종성	「율곡의 공공성 리더십 이념과 천리구현의 정치 및 언론 소통의 문」	『대동철학』95	대동철학회
2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 계몽의 정치성 연구」	『대동철학』 97	대동철학회
3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德治)과 양민(養民)의 관계 양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4	최보경	「율곡『經筵日記』에 나타난 士의 召命意識」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세종	「율곡 이이의 정치이론[政道]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6	이경동	「17세기 사상계의 율곡경세론 수용과 전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7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정암·퇴계·율곡의 역사의식과 실천담론의 계승,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이현선	「이이의 기질변화론 고찰–장재수양론과 대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9	이영경	「율곡의 수양론에서 성의(誠意)의 도덕실천적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0	고윤숙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修己)」 경(敬)의 연관성 고찰–정좌(靜坐)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1	최기훈	「이율곡의 『순언(醇言)』에 나타난 유도심성론(儒道心性論)의 회통(會通)」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2	김세종	「율곡의 사상에서 윤리의 주체성 문제 고찰—인심도심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난숙	「율곡의 천도 조화와 도체 해석–유도회통(儒道會通)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4	정강길	「리기지묘(理氣之妙)의 묘(妙)를 해명하기–율곡 리기론(理氣論)의 과정원자론적 분석」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15	윤천근	「율곡의 『순언』에 대한 고찰–16세기 조선 시대문화의 전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016년 이래 모든 조사에서 이이와 이황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편수가 많지만, 그 연구 분포를 보면 일관된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이이에 관한 논문 가운데에는 유독 경세론 관련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위의 목록 중에서 경세론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는 연구는 1~7에 해당하는 일곱 편이다. 이는 이황 관련 연구에서 보이는 두 편보다도 훨씬 많지만, 이이 연구 목록 자체로 보아도 전체 연구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나머지 8편의 연구는 수양론과 심성론, 이기론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순언』을 다룬 연구가 총 네 편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2) 퇴계 이황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보승	「퇴계 이황의 역사의식과 경세사상 및 그 구현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정암·퇴계·율곡의역사의식과실천담론의계승,발전이라는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3	정재권	「퇴계(退溪) 『활인심방(活人心方)』의 활용 방안 연구–심리상담을 중심으로」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4	박균섭	「퇴계 사상의 교육학적 해석과 미래 전망」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5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학교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91	한국교육철학회
6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 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7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8	이상호	「퇴계학 전승과 학파의 이론기반으로서 '퇴계학' 성립에 관한 연구(2)–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9	김형찬	「理學과 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10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형성배경과 천리체인의 방법」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1	정도희	「퇴계의 人心道心說–「人心道心精一執中圖」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12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 理解」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13	王晩霞	「퇴계의 주돈이 사상 계승적 측면」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14	최다은	「퇴계 매화시에 나타난 소박미담론」	『동양예술』 50	한국동양예술학회
15	서근식	「퇴계 이황의 『啓蒙傳疑』에서 『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2021년 발표된 퇴계 관련 논문은 15편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이 관련 논문과 동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논문들의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기존 퇴계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단칠정 논쟁, 더 넓은 범위로는 이기론에 관련된 연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미발론 등을 다룬 수양론이나 넓은 의미의 교육론, 사상사적 측면, 경학적 측면 등의 주제가 다각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3) 간재 전우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 사상 고찰–喪禮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2	길태은	「간재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3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4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5	정종모	「艮齋田愚의 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6	이상익	「유교(儒敎)의 인문정신(人文精神)과 간재(艮齋)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의 의의」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혜수	「간재 후학 立窩 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전우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5-6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의 일곱 편은 근소하게나마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이기는 하다. 또 그 가운데 포함된 연구 주제도 상당히 다양하다. 김현수는 전우의 예학 사상을 다루었고, 길태은은 경학적 관점을 통해서 전우의 도의에 내재된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승환은 전우의 미발론을 주제로 다루었고, 정종모의 전우의 심통성정론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익은 전우의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인 성사심제설을 인문정신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조명하였고, 유지웅은 타 학파(화서학파)에 대한 전우의 비판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김혜수는 전우의 후학을 중심으로 간재학파의 성리설을 연구하였다.

4) 여헌 장현광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엄연석	「장현광의 태극설과 경위설의 문화다원론적 재조명-『여헌 선생 성리설』의 이론적 해명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한재훈	「조선 성리학에서 여헌학파의 학파적 좌표」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	김낙진	「心法의 관점에서 본 장현광의 경위설」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엄연석	「여헌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5	홍성민	「理氣經緯의 형이상학과 도덕적 인간학」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021년 한국 성리학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장현광에 관한 연구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다는 것이다. 엄연석은 장현광 학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알려진 경위설의 도덕실천적 의미를 규명한 논문과 문화다원적인 함의를 조명한 논문까지 2편의 연구를 발표했다. 김낙진은 심법의 관점에서 수양론에 중점을 두어 경위설을 분석했다. 홍성민 역시 경위설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기론에 따른 형이상학적 특성과 인간관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었다. 한재훈은 학파적인 관점에서 여헌학파를 다루었다.

5) 송사 기우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활동과 노사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研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년 연구동향에서 보인 또 하나의 특징점은 노사학파의 송사 기우만에 대한 연구가 4편으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3편이 동일한 연구자(박학래)의 성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해당 연구자의 지향을 반영하는 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기우만이 주목받는 것은 노사 기정진으로부터 이어진 노사학맥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가리킨다. 박학래 뿐만 아니라 김근호 역시 기우만의 심학과 위정척사(부정척사) 사상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다.

6) 우암 송시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문준	「송시열의 도학적 사회사상」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2	박학래	「尤庵 宋時烈의 수양공부론芻議」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3	박학래	「尤庵 宋時烈의 "中節"說 淺析」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2021년 목록에서 우암 송시열에 관한 논문은 세 편 포함되었다. 김문준은 송시열의 사회사상을 다루었다. 반면 안재호는 송시열의 수양론과 심성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7) 성호 이익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6)」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2	이재복	「이익과 이병휴의 공칠정설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66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3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사고를 탈피했는가-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성호 이익은 실학자로도 분류되지만, 성리학과 연관 관계가 높은 내용이 다루어진 연구의 경우에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전수연 등은 양명학에 대한 조선성리학자들의 비판을 주제로 한 연구 기획의 일환으로 성호 이익을 다루었다. 이재복은 성호학파의 분기를 초래할 정도로 격렬한 토론 주제였던 공칠정설을 이익과 이병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정연은 "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주제로 성호학과 주자학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규명하였다.

8)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배제성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	『양명학연구』 62	한국양명학회
2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 해석체계-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	『철학』 146	한국철학회

남당 한원진 관련 연구는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5-6편이 꾸준히 발표되었던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두 편만이 발표되었다. 연구방향도 기존에 주로 논의되었던 방식과는 다르다. 배제성의 연구는 한원진의 학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의 양명학 비판에 추점을 두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최영진과 초첨첨은 한원진의 저술인 『경의기문록』에 나타난 「태극도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의 성삼층설에 대한 분석까지 논의를 확장하여 전개하였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1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37%)이나 2020년(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별의 연구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 자체는 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16편(약 18%)인다. 이는 개수와 비중 면에서 2020년과 일치한다. 경세론 관련 논문은 9편으로 1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13편(약 14%)보다 감소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14편으로 대략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의 23편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수양론 및 경세론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였지만, 경세론과 기타 범주 논문들은 상당히 줄었고, 이기심성론 관련 연구의 개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기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3	장세호	「사계 김장생의 철학 사상」	『韓國思想과文化』 104	한국사상문화학회
4	김승영	「입암 남정우의 「태극도설」 해석에 나타난 우주론 이해의 특성」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5	김동희	「구봉 송익필의 리기묘합적 사유–한국유가철학 방법론 모색–」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6	이원준	「낙론계 성리학자들의'리약기강(理弱氣强)'명제 인식–18세기 이후 한국 성리학계의 '이기일원화(理氣一元化)'경향성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7	이난숙	「율곡의 천도조화와 도체 해석–유도회통(儒道會通)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정강길	「리기지묘(理氣之妙)의 묘(妙)를 해명하기–율곡 리기론(理氣論)의 과정원자론적 분석」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9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 사고를 탈피했는가–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10	王晩霞	「퇴계의 주돈이사상 계승적 측면」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11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12	홍성민	「理氣經緯의 형이상학과 도덕적인간학」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13	조우진	「月波 鄭時林의 主理說—交遊關係와 「猥筆」 論辨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14	정도원	「문봉 정유일의 합리적 세계인식과 도학지향」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15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해석체계-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	『철학』 146	한국철학회
16	조민환	「조선조 書論에 나타 난理氣論적 書藝認識」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14편으로 전년도(5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이기심성론의 편수 역시 2020년 39편에서 2021년 51편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이이, 이황, 김장생, 장현광, 기정진, 김장생, 정유일 등이 다루어졌다.

2) 심성론

2021년 목록에 포함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35편이었다. 논문 수가 많은만큼 전년도와 유사하게 이 논문들을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호락논쟁, 심설논쟁 그리고 기타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세종	「율곡의 사상에서 윤리의 주체성 문제 고찰—인심도심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철학논집』69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재복	「이익과 이병휴의 공칠정설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66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3	이상호	「퇴계학전승과 학파의 이론기반으로서 '퇴계학'성립에 관한 연구(2)—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4	정도희	「퇴계의 人心道心說—「人心道心精一執中圖」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理解」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6	룩이준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재검토—'理氣渾淪'개념을 통해서—」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7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儒學硏究』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정재현	「사단칠정론은 철학이론인가?」	『유교사상문화연구』83	한국유교학회

2021년에 발표된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관련 논문은 8편으로 전년도의 5편에 비해서는 다소 많았지만 2019년의 15편에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더 적었다. 예년의 경향을 보면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에 대한 논문은 지속적으로 심성론 내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이례적으로 크게 줄어서 호락논변보다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2021년에는 다시 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어 호락논쟁(4편)보다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전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압도적인 비중은 아니다. 이러한 변동양상이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록에 포함된 논문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세종은 율곡의 인심도심론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윤리의 주체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하게 풀어내었다. 정도희와 김성실은 상대적으로 사단칠정론이 더 주목받아 온 이황의 인심도심론에 초점을 둔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정연은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을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편, 정재현은 성리학 연구에서 가장 철학적인 이슈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 온 사단칠정론이 정말로 철학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2) 호락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유지웅	「18세기 중반 기호낙론계 심론—심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儒學硏究』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종우	「김창흡과 이현익의 미발과 미발공부의 유무에 관한 논쟁 및 김창협과 비교」	『양명학연구』 63	한국양명학회
3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67	온지학회
4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021년 호락논쟁 관련 연구는 4편으로 전년도의 11편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이는 2018년 이래로 4편, 7편, 11편으로 증가해 온 경향이 반전된 양상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한원진과 이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기론 파트에서 최영진과 조첨첨의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해석체계- 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가 한원진을 중심으로 호락논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호락논쟁 자체를 주제로 다룬 논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의 네 편의 논문 주제를 보면 유지웅은 낙론계를 통해 심에 대한 이기론적 규정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종우와 배제성은 한원진과 이간 당대의 호락논쟁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다룬 내용과 인물이 다르다. 이종우는 김창흡과 이현익을 다룬 논문 한 편과 더불어 주희의 미발공부와 비교하여 여러 명의 호락논쟁 논자들의 학설을 함께 다룬 논문 한 편을 발표하였다. 배제성은 외암 이간과 더불어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호학의 구성원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론을 주제로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0년도 조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호락논쟁에 대한 연구

가 한원진과 이간의 논쟁 이후의 다양한 전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1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의 양은 적었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추후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만 하다.

(3) 심설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70	한국철학사연구회
2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102	한국동서철학회
3	김낙진	「허유의 심설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70	한국철학사연구회
4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繼承에 의한 心性論一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호락논쟁 이후 조선 후기의 대규모 논쟁인 심설논쟁 관련 논문은 4편으로 2020년에 비해서 1편 늘었다. 결국 심설논쟁 관련 연구는 지난 3년간 비슷한 정도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올해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은 심설논쟁에 관련된 주요 학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지웅은 간재학파의 관점에서 화서학파의 논의를 함께 다루었고, 전병철과 김낙진은 한주학파에 초점을 두어 심설논쟁을 조망하였다. 이형성의 연구는 노사학파의 관점에서 심설논쟁의 주요 이슈인 명덕설에 관해 논의하였다.

(4)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68	한국철학사연구회
4	계영경	「성현 『부휴자담론』에 나타나는 '기질지성'의 일관성문제—이택후의 '積澱' 개념과 연관하여—」	『민족문화』59	한국고전번역원
5	안재호	「尤庵 宋時烈의 "中節"說 淺析」	『동서철학연구』99	한국동서철학회
6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종석	「『心統性情圖』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李晩寅과 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8	홍원식	「한재 이목의 도학정치론과 철학사상」	『孔子學』44	한국공자학회
9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최기훈	「이율곡의 『순언(醇言)』에 나타난 유도심성론(儒道心性論)의 회통(會通)」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1	김형찬	「理學과 心學,그 간극 극복의 과제—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12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형성배경과 천리체인의 방법」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3	이명심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연구」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14	정종모	「艮齋 田愚의 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동양철학연구』105	동양철학연구회
15	이상익	「유교(儒敎)의 인문정신(人文精神)과 간재(艮齋)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의 의의」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6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7	이치억	「문봉 정유일의 퇴계학 계승 양상」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18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單說과 並說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9	배제성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	『양명학연구』 62	한국양명학회

기타로 분류된 연구 가운데는 위에서 이미 제시한 범주들에 어느 정도 관련된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타로 따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예를 들면 전성건의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박학래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김근호의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와 같은 연구들은 심설논변에 관련되는 연구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분류된 연구들의 폭은 넓은 편이다. 홍원식은 한재 이목의 도학정치론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고, 이치억은 문봉 정유일의 퇴계학 계승 양상을, 추제협은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을 특징을 규명한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김승영은 퇴계 미발론의 형성 배경을 천리체인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명심은 조선 후기 호락논쟁 과정에서 독특한 학설을 주장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녹문 임성주와 왕양명의 심성론을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유교의 인문정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이상익의 연구나 리학과 심학의 간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이황의 관점을 해석한 김형찬의 연구도 주목할 만 하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2021년에 게재된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현선	「이이의 기질변화론 고찰 — 장재 수양론과 대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2	정재권	「퇴계(退溪) 『활인심방(活人心方)』의 활용방안 연구 —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3	안재호	「尤庵 宋時烈의 수양 공부론 芻議」	『한국 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4	박균섭	「퇴계사상의 교육학적 해석과 미래전망」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5	길태은	「간재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6	김혜수	「간재 후학 立窩 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7	김낙진	「心法의 관점에서 본 장현광의 경위설」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8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학교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91	한국교육철학회
9	강동호	「제주오현 규암 송인수의 수기치인 공부론과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94	한국교육철학회
10	사재명 황영신	「한국 유학의 심성론에 근거한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 「신명사도」와 「천군전」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1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12	성광동	「성리학의 공부론과 이상적 삶의 모습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83	동양고전학회
13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14	이영경	「율곡의 수양론에서 성의(誠意)의 도덕실천적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5	고윤숙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修己)」 경(敬)의 연관성 고찰— 정좌(靜坐)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6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論語』解釋」	『退溪學報』149	퇴계학 연구원

16편의 연구에서 역시나 이황을 주제로 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이가 3편 전우가 2편을 차지하고 있다. 수양론과 교육론에서 기존에도 많이 다뤄진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전우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로 나누자면 정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다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수양을 행위로서 고찰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학이나 심리상담 그리고 욕망이라는 현재의 주제들과 연관된 논문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서도 수양론과 교육론이 여전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만한 주제로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었음도 확인 가능했다. 이에 이황의 미발수행을 욕망의 절제라는 관점에서 다룬 논문을 개별 리뷰로 분석하여 현재 어느 수준까지 수양론을 현대적 의미와 연관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경세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종성	「율곡의 공공성 리더십 이념과 천리구현의 정치 및 언론소통의 문」	『대동철학』95	대동철학회
2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계몽의 정치성 연구」	『대동철학』97	대동철학회
3	김희	「율곡『순언』의 덕치(德治)과 양민(養民)의 관계 양상연구」	『동서철학연구』101	한국동서철학연구회
4	최보경	「율곡『經筵日記』에 나타난 士의 召命意識」	『동양철학』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세종	「율곡 이이의 정치이론[政道]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6	강보승	「퇴계 이황의 역사의식과 경세사상 및 그 구현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7	이경동	「17세기 사상계의 율곡 경세론 수용과 전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김문준	「송시열의 도학적 사회사상」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9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 — 정암·퇴계·율곡의 역사의식과 실천담론의 계승,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총 9편의 논문에서 우선 율곡을 주요 주제로 담고 있는 논문이 7편으로서 율곡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주목할 것은 율곡의 「순언」연구가 2편으로 유일하게 중복된 텍스트라는 것이다. 물론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타 연구에서도 「순언」이 언급됐기에 이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도덕경』의 편집본인 「순언」이 당시 정치와 경세에 해법으로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순언」에 관한 논문 하나를 아래 개별 리뷰 파트에서 분석하였다.

5) 기타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기타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보였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철웅	「변계량의 사상과 도교인식」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2	엄연석	「장현광의 태극설과 경위설의 문화 다원론적재조명—『여헌선생성리설』의 이론적 해명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함영대	「栗溪 鄭琦의 학술정신—시대인식과 학술저작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5	최다은	「퇴계 매화시에 나타난 소박미담론」	『동양예술』 50	한국동양예술학회
6	서근식	「퇴계이황의 『啓蒙傳疑』에서 『周易參同契』의 의미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7	한재훈	「조선성리학에서 여헌학파의 학파적 좌표」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8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조선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검토(6)」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9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방식과 사상적 배경」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0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 사상고찰— 喪禮를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1	허태용	「'성리학대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유교학회
12	김기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나타난 도학사상 연구」	『儒學研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研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	윤천근	「율곡의 『순언』에 대한 고찰 — 16세기 조선 시대 문화의 전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총 14편의 논문이 보이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논의된 가운데 의병장 기우만에 대한 연구가 두편 보인다는 것에서 구한말 유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헌 장현광에 대한 연구도 다수 보인다는 점, 그리고 퇴계의 시를 분석한 작품도 보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는 연구자들에게 숙제

로 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평자는 특히 구한말 유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에 간재 전우의 예학을 개별리뷰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4. 주요 분석 논문 및 비평

①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 계몽의 정치성 연구」

비록 동일한 연구자에게서 2편이 나오긴 했지만 『도덕경』을 재편집한 율곡의 「순언」 연구가 올해 3편이나 행해졌다는 점은 나름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본다. 이 논문의 필자는 「순언」에 담긴 율곡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자 여러 편의 논문을 써왔음을 이번 연구자료 정리로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순언」 연구가 텍스트에 알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어 이에 대한 평을 남기고자 한다.

필자는 '1 율곡의 사실적 경험성과 「순언」」 저술의 정치성'을 통해 당시 율곡이 『도덕경』을 재편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율곡에게 있어 「순언」의 저술은 도덕경에 대한 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나 일회적인 형태의 유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라는 김학래의 언급을 인용하여 「순언」에 담긴 율곡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는 도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정(仁政)을 강조하는 율곡은 현실정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순언」을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율곡이 붕당의 대립을 기존의 성리학적 해법으로는 분명 한계가 느꼈을 것이라 예상한다. 『도덕경』에 대한 율곡의 해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율곡은 무위(無爲)가 붕당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본다. 때문에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嗇'이 군신(君臣)이 서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한다.

필자는 본문2 '수양주체의 정치적 전화성(轉化性)'에서 조선 중기

사회의 혼란한 정치 상황은 이해관계로 왜곡된 이념의 대립성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사익을 제어하고 자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도덕경의 '嗇'이 군주의 수양론에 유효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전통 성리학이 지향하는 천명에 대한 인식은 『도덕경』의 무위에서도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군주가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정리한다.

위 논문은 단순히 유학자가 도가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를 넘어 율곡이 위정자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순언」을 편집했는가를 설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논평자는 필자가 「순언」에 대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존 연구 그리고 같은 해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필자가 「순언」을 군주론적 시각에 입각해 연구목적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 보인다. 우선 필자의 문제의식이 과연 합리적으로 논증되었는가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순언」 자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전무하다. 「순언」이라는 텍스트 즉 『도덕경』을 재편집한 이 글에 맞춰진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순언」에 대한 율곡과 당시 문인들의 직접적 언급을 인용해 이 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였어야 한다. 두 번째 「순언」에서 보여지는 편집과정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편집이라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새겨진 율곡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적어도 이 과정이 잇어야만 필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순언」에 대한 율곡의 문제의식을 독자들도 확인하고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이에 없다.

때문에 「순언」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려면 필자가 참고한 선행연구와 필자의 기존 연구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가능했다.

다만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필자의 불친절한 글쓰기는 여전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율곡이 제창한 경장을 통한 치세의 변통론은 쇠난의 정국을 타개해 나아가기 위한 군주의 정치적 활동성과 역량을 당위의 목적론이 기능하는 필연의 세계관 속에서 강화하는 내용이 된다.

필자는 율곡의 「순언」 집필목적을 설명하면서 당시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음을 위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과 방법론이 무엇이든간에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맞으며, 철학적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보기 쉬운 글이 아님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문은 연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지나치게 가독성 없는 문장은 필자로서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논문 전체에 일관되게 이어지기에 가뜩이나 선행연구와 원전 분석이 없는 상태라서 문장만으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독자에게는 좀 가혹하다고 느껴진다.

논평자로서 경세론에서 「순언」은 유일하게 중복 연구된 텍스트였고, 그런 점에서 반드시 다뤘어야 했는데, 두 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서술됐기 때문에 과연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평가한 이유는 성리학을 떠나 연구자가 본인의 논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를 반면교사로

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점차 성리학 논문은 학회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이번 연구분석 계기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 모색」

필자는 현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갈등의 원인으로 인간 욕망의 조절 문제를 꼽았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치환시킨 필자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미발(未發)시에 관한 퇴계의 언급들을 기미용사—계신공구—거경의 구도로 분석했다.

먼저 남언경과 논의한 퇴계의 언급들을 통해 미발시 기가 용사(用事)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인간이 순수한 리를 체인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논증했다. 중요한 것은 기가 용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기와 리의 괴리가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퇴계가 해결해갔는지이다. 필자는 이에 퇴계가 말하는 용사하지 않는 기란 심기(心氣)라고 지목하며 미발시에 마음이 고요하므로 리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뒤에 주로 논의될 리의 체인에 관한 복선으로 기능한다.

이어서 필자는 마음의 병을 퇴계가 리의 체인 부족이라고 진찰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계신공구를 통해 마음의 병을 어떻게 다스릴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일무적과 계신공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을 항상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필자의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렷한 정신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욕망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미발시 마음이 또렷이 깨어있어야 리를 체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 과정을 감정이 싹트기 전 그리고 보거나 듣지 않을 때 항상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이통의 '융석', '쇄락'으로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경을 통한 욕망조절을 논했다. 필자는 경(敬)이 동정을 관통하고 있음을 근거로 미발시 또렷이 깨어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발시 대상사물을 응접할 때도 알맞게 대할 수 있어 욕망이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발에 대한 퇴계의 언급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에 대한 충분한 인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성패는 크게 미발시의 수양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는지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욕망의 조절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분석했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선 미발에 대한 필자가 언급한 '또렷한 정신'과 표현은 분명 사물을 접하지 않은 상태라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미발에 관한 언설들을 나름 합리적으로 풀이한 증거라고 본다. 또 미발을 기미용사, 계신공구, 리의 체인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필자가 개념을 충실하게 복기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미용사를 심기로 풀이하는 부분을 통해 독자들도 이해가능한 수준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미발공부를 인식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럼에도 논문이 미발공부를 완전히 설득력있게 말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미발은 일반 독자에게는 어렵고, 또 논문도 그러한 난해함을 완벽히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는 현대적인 해석과 원전에 대한 충실함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필자는 미발을

'감정이 싹트기 전',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전'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했다. 우선 전자는 적연부동, 혹은 미발을 말 그래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이미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구하기를 생각하면 또 문득 이는 생각함이니, 이미 생각하면 곧 이미 발한 것이다.'〔蘇季明問喜怒哀樂未發之前, 求中可否? 曰不可. 旣思於喜怒哀樂未發之前求之, 又却是思也, 旣思卽是已發〕에 입각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과 필자가 제시한 또렷한 정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것이다. 분명 필자 스스로는 이미 미발을 이해했을 지는 몰라도 이 이해과정이 충분히 논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발의 대한 오해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리의 체인에 대해서도 계속 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리를 체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것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현대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할 지를 필자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가 제목에서부터 내걸었던 욕망의 조절이 필자의 미발수행을 통해 얼마나 해결됐냐가 의문이다. 욕망의 조절은 현대인들도 겪고 있는 문제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통해 분명 필자는 미발공부가 현대에도 유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다만 내용의 대부분이 미발공부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고 이것이 실제로 사람이 겪는 참고 싶어도 참지 못하는 욕망의 발로에 얼마나 직결한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단순히 리를 체인해서 욕망이 조절이 됐다면 이는 지나치게 지성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으로 욕망을 접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지주의가 그다지 크게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욕망을 너무 쉽게 봤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③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상례를 중심으로―」

필자는 간재 전우의 예학 사상 연구가 초기단계임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 이에 간재 예학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학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간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효종에 대한 복제(服制)문제에서 불거진 장자복제(長子服制),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상례를 논의한 부재위모상(父在爲母喪), 그리고 훼손된 무덤을 보수하는 복토(復土)과정에서의 복제에 관해 간재의 견해와 그 논거를 분석함으로써 간재 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했다.

우선 장자복제의 경우 필자는 예송논쟁에서 정현의 '적처소생(嫡妻所生)'에 대한 가공언의 소(疏)가 각기 상이하게 해석됨을 소개했다. 윤휴와 허목은 소(疏)에서 언급된 '적처의 소생이면 모두 적자라 이름한다'를 바탕으로 효종에 대한 복제로 장자삼년복을 주장했음을 보인다. 이어 우암은 가공언의 소(疏)를 근거로 종통을 계승하더라도 장자삼년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서자가 후사를 잇는 경우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재최기년복이 옳다고 반론한 부분을 소개했다. 또 간재는 적장자의 아우가 서자이므로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우암의 주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간재의 견해는 적적상승의 종법 원리가 삼대까지 이어진다는 우암의 의견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여 간재가 율곡학파의 의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어 필자는 아버지가 생존하실 적 어머니의 상례에 대해 간재는 매산 홍직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최복을 입다가 15개월에 담제를 하고 이후 심상(心喪)으로 삼년상을 마침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돌아가

신지 27개월이 될 때 우암과 도암은 간략히 곡하고 다음 날 길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주장하지만, 간재는 이미 담복을 벗었으니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간재의 주장은 매산이 우암의 주장을 도암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바탕하고 있음을 필자는 논증했다.

마지막으로 가례의절과 고례•주자의 예설이 가장 차이나는 부분인 개장복(改葬服)을 논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묘가 훼손되어 관이 드러날 때 우암은 복토 후 상복을 벗는다고 주장했는데, 간재는 복토 후에도 3개월간 시마복을 입는다는 매산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간재는 우암이 시마복을 바로 벗는다고 주장한 적도 있고, 3개월간 입는다고 주장한적도 있다며 후자가 우암의 정론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간재가 우암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밀한 부분에서는 특히 매산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산의 주장에 유일하게 간재가 비판한 부분이 승중(承重)한 서자의 차자가 친조모에 대해 어떤 복제를 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매산은 친조모에 대해 기년복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간재는 친조모도 결국 서조모이므로 심상만 해야 한다며 매산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간재가 매산의 의견을 강력히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적서(嫡庶)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에 이 문제는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재의 매산 예설의 수용은 적서의 명확한 구분에 기반한 것이므로 간재 예설의 기준점은 적서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위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독성과 명확함이다. 구한말 가장 중요한 유학자로 손꼽히는 간재가 실천적 영역인 예학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논증했다. 간재의 주장이 기존 주장의 어떤 부분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취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예학을 논평자와 같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 유학자의 사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려면 결국 실제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예학은 분명 연구자들이라면 되짚어볼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위 연구는 이미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간재의 견해가 일관되게 율곡학파의 주장을 계승하고 적서의 엄격한 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부분에서 입증했기 때문에 간재 예학의 특징도 명확히 잡을 수 있었다.

④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理解」

우선 이 논문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그의 인심도심설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이황의 인심도심설의 의미를 밝히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는 크게 다르며, 급진적이기까지 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통념과 달리 이황은 호발설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인심과 도심의 구분 자체도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이르는 출발점은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고 양자를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도심을 목적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윤리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인심과 도심의 구분이 곧 인간의 마음을 이원화하고 분열시키는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연

장선에서, 저자에 따르면 퇴계 역시 결코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구분을 지향하려고 했던 것이 퇴계의 실제 목적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퇴계는 '리발이기수지'와 '기발이리승지'의 대비 구도 또한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리발이기수지'만을 주장했으며, '리발이기수지'에 대응하는 도심의 존재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무수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틀을 부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소하다. 이에 관해서는 저자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 여기서 퇴계와 고봉은 '사단이 순선하고 성에서 발한다'는 명제에는 서로 간에 異見이 없다. 그러나 칠정에 있어서는 고봉은 선악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았고, 퇴계는 性發爲情이기에 情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그 情이 '理에서 발하지 않고 氣에서 발했다〔氣發而理乘之〕'는 '착각'을 하게 될 때 정이 '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情' 자체는 선할 뿐이며 단지 자신의 '착각'으로 정이 악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다.[1]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은 조선 성리학 관련 주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그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반적인 이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일종의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소한, 이황이 기대승에 비해서 사단과 칠

1 원 논문 82쪽

정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이기론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러한 구분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확립하려 하였음은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전거 또한 적지 않다는 그 동안의 인식이 정말 크게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불안감마저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가 이처럼 새롭고 과감한 주장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주장을 제시한 방식에 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자세한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에 대한 내용은 각주로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이황의 주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전체 논지의 성패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다. 사실 이 주장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도 이황과 사단칠정론 연구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자가 이에 대한 논증을 너무 소략하게 제시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만 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자가 소략하게나마 제시한 전거와 그에 관련된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다음 내용이 그 전거이다.

> "如四端之拔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위 글은 「성학십도」 제6도인 심통성정도에 실린 내용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저자는 이로부터 "퇴계가

오직 理發만을 주장하였으며, 氣發은 실재〔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생각 속의 영역에 있는 '착각'"이라는 주장을 도출한다. 저자는 그 핵심적인 근거를 '만약 기가 발했는데 중절하지 않아서 그 리를 멸하면, 제멋대로 하여 악이 된다〔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는 표현에서 찾는다. 여기서 '만약 기가 발했는데 중절하지 않아서...'에서의 가정형의 표현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착각임을 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과 현실과 다르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 문장의 표현으로 보아도 '기가 발하여 중절하지 않아서 그 리를 멸한다고 착각한다면'이라는 식의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착각'의 의미를 주어진 문장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칠정'이 '기발이리승지'라는 표현은 '若氣發不中'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착각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나, 저자의 이해방식을 받아들인다면 '기발이리승지'는 애초에 착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선함이 없다'는 술어를 붙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전거와 해석만으로는 저자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저자가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더 정리된 주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 논문에서도 이미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미뤄두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 논문의 전체 논의가 바로 이 주장에 따라 추론되고 확장된 해석들이기 때문이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더 보완된 논의를 기대한다.

⑤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 해석체계
-『經義記聞錄』「太極圖」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남당 한원진이 자신의 저술인 『경의기문록』 가운데 「태극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글의 초두에서 이 논문이 한원진의 성리설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태극도설 해석'에 주안점을 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호락논쟁과도 연관되는 한원진 이기심성론의 특성이 그 해석에 반영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원진의 학설과 호락논쟁, 그리고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측면들이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논문의 구체적인 전개는 「태극도설」 내용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을 한원진이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를 보이고, 그러한 해석의 함의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주자 성리학의 근본적인 난제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리(理)의 동정(動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리의 관점'과 '기의 관점', 그리고 '원두의 관점'과 '유행의 관점'이라는 측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태극이 음양을 생(生)한다는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한원진은 생(生)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한다고 본 송시열과 달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태극과 음양, 즉 리와 기의 구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이다. 저자는 이러한 한원진의 입장이 '리선기후'와 '이기이물'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태도의 반영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태극의 보편성과 특수성, 본연지성과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그의 성삼층설에도 관계되는 이기론의 세 가지 공식을 도

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불리'(기질지성), '부잡'(초형기의 본연지성), 그리고 '병포불리부잡'(인기질의 본연지성)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문이 조선 후기 논쟁사를 다루는 접근 방식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유학 경전을 중심으로 한 중요 문헌에 대한 해석의 과정과 이기론과 같은 이론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가결한 측면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조선 성리학사에서는 성리학 이론에서 비롯된 논쟁 과정이 그 이기론 체계의 조정과 정교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 논쟁의 이슈는 이기론적 관점과 경학 해석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우리는 조선 성리학의 논쟁 및 거기서 제출된 주장의 의미와 독창성을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그러한 상관관계를 풍부하면서도 심도 있게 풀어내고 있다. 태극도설이라는 문헌 해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성리학 이기론의 근본적인 특징, 그리고 한원진의 성삼층설 및 그 논쟁점 등이 여러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잘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더 넓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원진의 학설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후 조선 후기 논쟁사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⑥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 사고를 탈피했는가
—리 개념의 분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성호 이익의 학설에서 드러나는 리의 분화가 함의하는 바와 그것을 통해 이익이 추구한 목적을 규명하였다. 저자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성호학의 리의 분화가 해석되고 있는 두 양상을 제시한다. 일단의 학자들은 그 리의 분화가 물리와 도리를 구분한 것으로 도덕과 구분되는 사물탐구, 즉 과학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도덕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근대의 서양 지식을 포섭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리의 분화는 곧 태극과 개별 현상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이일분수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몇몇 학자들은 이익이 반드시 유럽의 과학지식을 추구해야만 할 강한 이유가 없었으며 굳이 주자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지식들을 추구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반론한다. 이러한 관점을 따를 경우 성호학이 이일분수적 세계관을 부정했다는 해석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견들 사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자가 검토하는 것은 '리의 분화'라고 하는 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저자는 이익 학설에서 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물리와 도리의 분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에서 실현되는 리'와 '심에서 실현되는 리'로 구분하는 것이 이익의 실제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이 주자학적 세계관의 거부를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저자는 이익이 여전히 하나의 태극을 중심에 두는 통일성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분화된 리는 여전히 상호연관

성을 유지하고 있게 되며, 근대 과학의 수용이라는 필요는 이익에게서 나타난 리의 분화 이면의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의 가설은 이익이 퇴계의 사칠설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 체계를 건립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가졌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실현되는 리'와 '심에서 실현되는 리'라고 하는 구분되는 측면은 각각 기발과 리발, 즉 칠정과 사단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조선 후기 사상사라는 난맥상을 잘 풀어내기 위해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논지를 잘 전개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서 나타난 사상적 변동의 양상은 많은 경우에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형태로 여러 요인들이 얽힌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점은 한편으로는 퇴계학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학자로 받아들여지면서 서학에도 큰 관심을 가진 이익과 같은 학자의 경우에는 한층 더 복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견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거 및 자신의 해석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익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2021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 및 주요논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전체 현황을 요약해보면, 일단 인물별 검토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었다. 연구성과분석이 시작된 이래,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던 이황에 관한 논문이 2020년에는 6편에 불과하여 크게 줄었으며 이이와 이황을 합한 비중 또한 전체 조사 논문의 약 26%로 많이 감소했었다. 이에 비해서 2021년에는 다시 이황 연구의 수가 증가하여 이이와 동수를 이루었는데, 이와 더불어 이황과 이이 연구의 전체 비중 또한 2020년(26%)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약 32%로 나타났다. 2020년 보고서에는 이황과 이이를 중심에 둔 연구경향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소 반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의 한 특징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5·6편 정도로 안정적인 연구 경향을 형성해왔던 한원진 관련 연구가 2편으로 줄었고, 이와 더불어 호락논쟁에 관한 논문도 4편으로 전년도 11편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점이다. 반면 간재 전우에 관한 연구가 이황·이이 다음으로 많은 7편이었고,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편이 발표되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빈도가 유지 및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에 추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1편, 약 57%)이 매우 높았다. 이는 2019년(37%)이나 2020년(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포함된 수양론 및 교육론(16편, 약 18%)의 비중은 작년과 동일했다. 경세론에 관한 논문은 9편이며 그 비중은 10%로 2020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14편으로 대략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의 23편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수양론 및 경세론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였지만, 경세론과 기타 범주 논문들은 상당히 줄었고, 이기심성론 관련 연구의 개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물별로는 이황·이이에 편중되고, 주제별로는 이기심성론, 사단칠정·인심도심에 편중된 경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경향이 다소 반전되어 증가한 양상을 보인 것이 한 특징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는 편중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더 장기적인 시야의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폭 넓은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우수한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성과의 축적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사 전반을 통괄하 수 있는 시야과 관점이 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